

국어[한문 포함]

문 1. 밑줄 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 ② 위험물 주위에 바리케이트를 쳤다.
- ③ 이 광고에 대한 컨셉트를 논의했다.
- ④ 인터넷을 통해 많은 컨텐츠가 제공되었다.

문 2. 밑줄 친 활용형 중 옳은 것은?

- ① 식은 국을 따뜻하게 데서 먹었다.
- ② 아이가 소란을 펴서 정신이 없다.
- ③ 어린이가 한시를 줄줄 왜서 놀랐다.
- ④ 나는 뜬눈으로 밤을 새서 너무 피곤하다.

문 3. ㉠ ~ ㉣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1900년대 이후로 다른 문자를 지양하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각급 학교 교재에 한자는 괄호 안에 넣는 조치를 취했다.

㉡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고심했던 일은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 한글학회의 『큰사전』에서는 모든 단어의 표제어는 한글로 적었고 괄호 속에 한자, 로마자 등 다른 문자를 병기하였다.

㉣ 이로 인해 1930년대 이후에 우리 어문 연구자들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표준어를 사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문 4. ㉠,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 ㉠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를 놓쳤다.

○ 그의 실력은 장인의 실력에 ㉡ 비견될 만하다.

- |      |    |
|------|----|
| ㉠    | ㉡  |
| ① 間髮 | 批腑 |
| ② 簡拔 | 比房 |
| ③ 間髮 | 比肩 |
| ④ 簡拔 | 批腑 |

문 5.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노래한 것은?

珠簾을 고터 짓고 玉階를 다시 쓸며  
 啓明星 듯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白蓮花 흰 가지로 뒤라셔 보내신고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

- ① 구름 빗치 조타 하나 검기를 즈로 하나  
 바람 소리 몹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뒤 업기는 뜰뿐인가 호노라
- ② 고즌 므스 일로 꿰며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호야 프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손 바회뿐인가 호노라
- ③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꽃기는 뒤 시기며 속은 어이 뷘연는다  
 더러코 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호노라
- ④ 자근 거시 노피 떠서 萬物을 다 비취니  
 밤둥의 光明이 너만호니 또 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 호니 내 벌인가 호노라

문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생산량이나 소득처럼 겉보기에 가장 간단할 것 같은 경제학적 개념도 이끌어 내는 데 각종 어려움이 따른다. 거기에 수많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생산량 통계에 가사 노동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한 예이다. 숫자 자체에 의미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생산량이나 소득 통계가 생활수준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난한 나라보다 식량, 주거,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한 상태인 부유한 나라들은 더욱 그렇다.

또 구매력, 노동 시간,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비금전적인 요인,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 위치제 등이 초래하는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행복측정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연구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행복은 그 자체로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다양한 선호의 문제가 개입된다는 점 때문이다. 행복은 가치의 영역으로서 그에 대해 부여하는 우리의 관념과 욕망, 선호의 지점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요인 등 복잡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행복측정 연구와 같은 영역은 그 대상을 측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물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제학에서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생산량, 성장률, 실업률, 불평등 수준 등에 관한 주요 숫자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실제 세상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해 주고, 무엇을 말해 주지 않는지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 ① 행복측정 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은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다.
- ②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더 어렵다.
- ③ 가치 판단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개념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 ④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14. 다음 발화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어(新語)에 대해 말할 때, 보통 유행어나 비속어, 은어와 같은 한정된 대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어 연구의 대상은 특정한 범주의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순화된 신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상당수의 전문 용어는 신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좌창(瘻瘡)’이라는 의학 용어를 대체한 ‘여드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도 신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어는 전문 용어의 순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어 연구가 단지 새로운 어휘와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연구를 넘어서 한국어 조어론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어의 영역은 대중이 생산하는 ‘자연 발생적 신어’의 영역과 더불어 ‘인위적인 신어’의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 ① 신어에서 비속어나 은어가 빠져야 한다.
- ② 신어는 연구 대상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 ③ 자연 발생적인 신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④ 신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그 범주를 특정해야 한다.

문 15. 다음 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열 두 새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띄어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준 비는 므스 일고. 삼춘 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가을 들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 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흐리. 청등(靑燈)을 돌라 노코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조츠 셋거 타니, 소상(瀟湘) 야우(夜雨)의 댕소리 섯도는 듯, 화표(華表) 천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넷 소래 잇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되야 구비구비 끈쳐서라. 출하리 잠을 드러 꿈의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는 님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천상(天上)의 견우 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셔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 (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디,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쓰쳤는고. 난간(欄干)의 비겨 서서 님 가신 디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쳐 잇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고디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룬 사람 수업다 흐려니와, 박명(薄命)헌 홍안(紅顏)이야 날 가트니 또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 「규원가(闋怨歌)」에서 -

- ① 시간 변화를 통해 슬픔과 기쁨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심정을 자연물에 의탁해서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연인과의 이별에서 찾고 있다.
- ④ 운명에 순응하여 힘든 결혼 생활을 견뎌 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명시적으로 개별적인 기본권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 이런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규율하는 공동체 질서 내에서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존속, 안전, 평화,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들이 있기에 국민이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치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① 인간의 자유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 ②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③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다.
- ④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므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문 17. ㉠ ~ ㉣의 문맥적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단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 열두 층계 위에 이제 ㉠ 겉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 춧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쭉한 속눈썹에 향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십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합니까?

몇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남아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 조지훈, 「석문」 -

- ① ㉠: 임에 대한 오랜 기다림
- ② ㉡: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
- ③ ㉢: 기약할 수 없는 임에 대한 체념
- ④ ㉣: 임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 (중략) ...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에 툭툭 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사내는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 사내는 출감 후부터 자꾸만 무엇인가 대단히 커다란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감방 안에서 사내는 손바닥 안에 움켜쥔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하릴없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자기 몫의 삶의 부피를 안타깝게 저울질해 보곤 했었다. ... (중략) ...

대학생에겐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스물넷의 나이인 그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삶은 잠이다. 마취 상태에 빠져 흘러보내는 시간일 뿐이라고 청년은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그런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있다. 유치장에서 보낸 한 달 남짓한 기억과 퇴학, 끊어오르는 그들의 신념과는 아랑곳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 밖의 질서 ..... 그런 것들이 자꾸만 청년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임철우, 「사평역」에서 -

- ① 등장인물들의 과거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②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③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 ④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문 19. ㉠과 ㉡에 대한 진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술이 ㉡ 과학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설명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한다. 특히 낭만적인 예술가들은 예술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표현에 있다고 보고, 예술의 기능이 과학의 기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과학이나 예술은 다 같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물 현상에 질서를 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과학이나 예술의 목적이 진리를 밝히는 데 있으며, 그들의 언어가 갖는 의미는 그 언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에서 찾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언어가 과학의 언어처럼 지시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예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모나리자라는 여인을 모델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물을 지시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예술 작품은 실제 인물과 상관없이 표현의 결과물로서 존재한다. 이처럼 예술 작품은 의미를 갖는 언어 문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예술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 ① ㉠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다.
- ② ㉠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 ③ ㉠과 ㉡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다.
- ④ ㉠과 ㉡을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 20. ㉠과 ㉡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중예술’이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하게 사용된다. 이 용어는 19세기부터 쓰였고, 오늘날에는 대중매체 예술뿐 아니라 서민들이 향유하는 예술에도 적용된다. 이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은, 예술이란 용어 자체가 이미 고유한 미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예술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며 범주상의 오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위계적 이분법 아래에 예술 대 엔터테인먼트라는 대립이 존재함을 알려 준다.

대중예술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는 고급 문화와 대비하여 저급한 것으로 널리 규정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대중예술에 관한 이론은 대개 두 입장 사이에 놓인다. ㉠ 첫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며 그것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두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와 동떨어진 영역, 즉 고급 문화에 도전함으로써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자율적 규칙, 가치, 원리와 미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첫 번째 입장은 다양한 가치를 이상적인 진리 안에 종속시킴으로써, 예술의 형식과 즐거움의 미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상대적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입장은 대중예술에 대한 극단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고급 예술이 대중예술에 대하여 휘두르고 있는 오래된 헤게모니의 흔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 ① ㉠은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 ② ㉠은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 ③ ㉡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 ④ ㉡은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독자성을 강조한다.